분노와 욕망에 대한 오해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⑲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 관련 경전 해석의 오류(보충)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전 중에는 이와 반대로 화를 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경전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사과를 받아 낸 사례가 〈잡아함경〉 제35권 '사라보경'(〈앙굿따라니까야〉 제3권 '싸라바의 경')에 들어 있다.

또 관세음보살에 관한 경전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다. 〈천수경〉에 나오는 십일면관세음보살은 얼굴이 열한 면이라서 십일면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열한 면 중의 앞 세 면은 자비상이고, 왼편의 세 면은 성내는 상이라고 한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열한 면 중에서 세 면이나 화내는 얼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비는 분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 준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상대에게는 결국 분노와 실력 행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일면관세음보살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성불을 향한 서원으로 잘 알려진 〈승만경〉에도 절복시킬 사람은 절복시키고 섭수해야 할 사람은 섭수하겠다는 승만 부인의 서원이 나온다. 이와 같이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전도 다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측면뿐 아니라 이 사회를 올바로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즉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응징을 해야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불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위와 같이 경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유 없이 모욕이나 공격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악업이지, 선업에 해당하는 인욕이 아니다. 또 내가 한두 번 참아 주면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뀌는 경우에는 참아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내가 참아 줄수록 나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참을 필요가 없다.

특히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화가 나는 것을 참는 문제와 밖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내면적 수행 차원과 사회 역사적 현실을 혼동하게 되면, 깨달음이 아무리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해도 소승에 불과하다.

욕망을 버리라는 데 대한 문제

다음으로 욕망에 대해 경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다. 불자들이 욕망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많은 경전에서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망 역시 성냄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적용해야지, 무조건 욕망을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욕망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때 나쁜 것이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자기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똑같이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욕망의 내용과 그 욕망이 추구되는 현실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악업이 되는 욕망인지, 아니면 선업이 되는 욕망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가불자들은 재산이나 사랑, 명예, 권력, 행복 등과 같은 세간적인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법구경〉 '노모품'에는 젊었을 때 부지런히 노력해 부를 축적하라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모으지 못하면
늙어서는 못 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옛일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정당한 분노는 자신과 사회 지키는 요소
부당한 공격에 맞서지 못함은 악업 해당

올바른 방향의 욕망, 개인·사회 발전 동력
정당한 방법·노력 통한 부 축적은 당연해

부유하되 낭비 없이 남 돕는 삶이 이상적
속아 입은 손해는 보시 아닌 악업, 참회 要

그러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불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경전이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경전이 또한 〈보왕삼매론〉이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는 말은 19세기 이전의 조선시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로 이익을 최대한 남겨서 돈을 버는 것이 보장돼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개인도 유지되고 사회도 발전해 간다.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당연히 용인되는 돈벌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불교적 행동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물론 위의 가르침의 취지는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이익을 취하고 빨리 큰돈을 벌겠다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의 글귀에 얽매여서 이익을 적게 취하는 것이 옳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여 번 재물은 남을 도와주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대승경전에는 〈유마경〉의 유마 거사와 같이 장자(長者), 즉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이면서 불자인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보살행에 재물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추구돼야 할 이상적인 불교적 삶이란 부유하면서도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지, 취해야 할 이익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불교적 삶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음을 선업으로 착각하는 오류

경전 해석 문제 외에도 불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문제를 하나 더 생각해 보자. 남에게 속아서 금전적 손실을 보고 난 뒤에 "보시한 셈 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에게 속은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악업이지, 보시라는 선업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행위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그 과보란 다름이 아니라 다음에 또 속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속은 것을 가지고 '전생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시한 셈 친다'거나 '전생의 빚을 갚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따로 참회를 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경전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가르침이 나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선자나 저질스러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나 자기를 지키는 기준을 쉽게 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참회를 하면서 행위의 기준을 찾고자 계속 사유해 가야 한다. 비록 분명한 기준이 잘 찾아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유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